



(사)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

수 신 태백시장

참 조 기획감사실장, 탄소중립과장

제 목 석탄산업 120년 백서 발간 요청

1. 대한민국 석탄산업은 2025년 7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폐광으로 사실상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석탄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것이라 사료됩니다.
2.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지역적 공간과 한시적 기간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있습니다만 정부가 공인하는 석탄산업 120년 역사를 기록한 백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3.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1906년 시작된 석탄산업 모든 부분을 즉, 순직산업 전사, 진폐증 등 탄광 근로자의 삶을 재조명하고 또한 석탄산업 문화 모두를 가감없이 조사 연구하여 정부가 공인하는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대한제국 시절인 1906년 6월 29일에 공표한 「광업법」(법률 제3호).

⇒ 대한제국이 법률로 공표한 최초의 광업관련 법률이므로 6월 29일부터 석탄산업이 시작되었다고 봄

4.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 현안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18개 시·군의 예산(출연 등)으로 설립하였고 매년 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 또한 태백시에서는 강원연구원에 매년 연구 수행 과제(정책과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철암지역 관광자원화 공모사업 발굴 용역) 이에 2026년도에는 가칭 「대한민국 석탄산업 120년 역사 발굴」 용역을 의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6. 지난 10월 28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 탄광자산을 활용한 보존과 개발 정책 토론회에서 이상호 시장님께서 「태백은 대한민국 산업회의 뿌리이자 석탄산업의 중심이었던 도시입니다. 수많은 근로자들의 땀과 헌신이 이 나라의 발전을 이끌었고 그 흔적은 지금도 도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쇠퇴와 함께 많은 탄광시설이 사라지고 기억 또한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산업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자산으로 되살려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석탄산업 120년 역사 발굴」 사업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7. 다시한번 사라져가는 대한민국 석탄산업이 하나의 이야기 거리가 아닌 정부가 공인하는 역사 기록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이상호 시장님이 정책 과제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건의 드립니다.

첨부 : 석탄산업 120년 백서 발간 요청(강원특별자치도 건의 문서) 1부. 끝.

(사)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실장	천순향	사무처장	박대근	수석부위원장	남해득	위원장	황상덕
시행	(사)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추진위원회 2025- 126 2025. 12 .						
전화번호	033-553-8844	팩스	033-553-8845	이메일	soon5242@naver.com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1130 (황지동, 태백시진·규폐복지회관)					우편번호	26039



(사)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

수 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참 조 폐광지원과장

제 목 석탄산업 120년 백서 발간 요청

1. 대한민국 석탄산업은 2025년 7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의 폐광으로 사실상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석탄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2. 하지만 안타깝게도 석탄산업 역사에 관하여 일부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지엽적 공간과 한시적 기간에 대한 연구 보고서는 있습니다만 정부가 공인하는 석탄산업 120년 역사를 기록한 백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3.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1906년 시작된 석탄산업 모든 부분을 가감없이 조사 연구하여 정부가 공인하는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대한제국 시절인 1906년 6월 29일에 공표한 「광업법」(법률 제3호).

⇒ 대한제국이 법률로 공표한 최초의 광업관련 법률이므로 6월 29일부터 석탄산업이 시작되었다고 봄

4.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12월 2일 폐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광부의 날인 6월 29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 또한 폐광지역에서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재탄생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석탄산업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석탄산업 120년 역사」 백서 제작의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5. 이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7월 24일 강원랜드에서 개최한 폐광지역 발전 포럼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석탄산업은 한 세기 넘게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중심축이었으며, 수많은 산업전사들이 이 땅에서 피땀을 흘려 국가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우리는 폐광지역 발전의 밑바탕에 석탄산업전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그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출발은 지난 과거를 제대로 기록한 역사책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6. 다시한번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조속한 시일내 대한민국 석탄산업 120년 역사책 발간 사업이 착수되기를 석탄산업 전환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건의드립니다. 끝.

[사]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실장 천순향	사무처장 박대근	수석부위원장 남해득	위원장 황상덕
시행	(사)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추진위원회	2025- 123	2025. 12 02
전화번호	033-553-8844	팩스	033-553-8845
		이메일	soon5242@naver.com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1130 (황지동, 태백시진·규폐복지회관)		우편번호 26039